

목포~흑산도 오가는 화물선사 횡포

운항시간 멋대로 바꾸고 “시간없다” 운송 장비 중도 하역… 화물주들 피해 속출

목포~흑산도를 오가는 모 선사측이 중도하역 등 일방적인 횡포를 부려 화물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장비 등을 옮기는 화물주들은 그동안 매주 월·수·금요일에 정기 운항하는 대흥 페리7호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대흥 페리 7호는 선박노후화로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수리에 들어 가면서 일시 운항중단된 실정이다.

이에 화물주들은 비정기적인 H해운의 페리를 대신 이용하고 있으나 H해운 측은 운항시간을 갑자기 바꾸거나, 중도하역을 하는 등 배짱운항을 하고 있다. 건설장비 화물주 박모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에 목포항에서 출항하기로 하고 운송 계약금을 선불로 송금했으나 H해운이 갑자기 오전 10시에 출항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H해운

은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운송해주기로 해놓고 ‘시간이 없다’며 진도 팽목항 인근에 건설장비를 하차하는 바람에 진도에서 목포까지 다시 장비를 옮기는 등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화물주는 “흑산도에서 목포로 오던 중 신안 압해도 송공항에 장비를 하차하는 황당한 일로 불만을 겪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선사 측의 중도 하역으

로 인해 화물주들은 건설 장비를 목포까지 다시 이동하는 불편함은 물론 유류비 등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선사 측의 일방적인 횡포가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는 관련 기관이 없어 화물주들의 피해는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H해운 관계자는 “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다른 화물주들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 화물주들과 합의하에 중도에 하역을 하는 것이지 임의적인 행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군 황도발에서 제철을 맞은 호박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냉해와 잦은 비로 작황이 좋지 않아 10kg 들이 한 상자에 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원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무분별한 인증 발급 억제… 소비자 믿고 찾을 수 있게

일부 사설 친환경 인증기관의 무분별한 친환경인증 남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청정 지역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배추, 고구마 등 10여개 농작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전체 1만7352ha였으나, 신규 간척지와 항공방제 지역, 직파재

배 단지의 무분별한 인증발급을 억제하고 취소 한 결과 신규면적을 포함 10월 현재 1만4254ha로 줄어들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농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군 담당자들이 농가를 직접방문해 소비자 입장에서 설득하고 우수 농가와 의 비교 등을 통해 사실 친환경인증을 가진 취소토록 만들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대표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해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우수 한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 친환경 농산물은 군 직영의 직거래 장터인 ‘해남미소’(www.hnmiso.com)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대 교수 1인당 연구비 2년 연속 1억원 이상 달성

목포대학교 교수 1인당 연구비가 2년 연속 1억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결과 목포대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1억335만 7000원으로 일반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2억2954만2000원)와 전북대(1억1678만6000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억 원 이상인 일반 국립대학은 서울대, 목포대 등 총 4개교뿐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작지만 특별한 음악회·전시회 인기

연산동 푸른 음악회·목포역내 글로리 미술관

주민들에 문화 예술의 단비·소통의 마당 제공

목포에서 열리는 작지만 특별한 음악회와 전시회가 목포 원도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단비’와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웃과 소통의 다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제의 행사는 연산동 주민센터 주최의 ‘푸른 음악회’와 목포역내 ‘글로리 미술관’ 전시회.

지난 2007년 5월 첫 선을 보인 연산동(동장 조영웅) ‘푸른 음악회’는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숲 속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음악회가 열리는 산정 농공단지 야외무대 주변에는 연산 주공 3·

4·5단지 1870세대, 현대산업 530세대, 대송 에이스빌 119세대, 신안비치 팔레스 1·2차 1012세대 등 총 54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이다.

특히 이 같은 음악회가 관 주도 가 아닌 동 자체센터 자력으로 20회 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제21회 푸른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목포역(역장 박석민)은 지난 4월 역 2층에 90㎡ 규모의 ‘글로리 미술관’을 개관, 외지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이 가치를 기

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남도 문화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관전인 송하 조병연 화백의 ‘다도해 진경전’을 시작으로 최환용·김희준·강남선·윤현식·서순례·김근태·박영도전(展) 등 10회를 넘어섰다. 회가 거듭할수록 전시회 영역도 단순 회에서 도예, 조각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글로리 미술관에는 11번째 전시로 박화자展이 오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특히 KTX와 접목해 수도권 미술애호가와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즐겨온 기차관광도 하고 미술품도 구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완도~제주 카훼리 ‘선상 그린스쿨’

‘찾아가는 기후 학교’ 등

수학여행 학생 대상 운영

국내 최초로 배를 타고 가면서 환경 관련 정보를 얻는 ‘선상 그린스쿨’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제주간 항로를 운항하는 한일고속은 민·관 협력 기구 그린스타트와 함께 수학여행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상 그린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스쿨은 바다 환경오염에 대해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수학여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스쿨은 ‘찾아가는 기후학교’ 진행 실습과 놀이 등 재미있는 체험 프로

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일고속 김진배 차장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심각한 피해를 줘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린스쿨의 목적”이라며 “내년부터는 일반 승객에게도 ‘선상 그린스쿨’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고속은 지난 1979년부터 완도~제주 간 카훼리 운영을 시작, 현재 완도에서 제주까지 3척의 카훼리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운항하기 시작한 한일 카훼리 1호는 6327t급으로 여객정원 975명, 차량 250대 적재할 수 있다. 운항 시간은 2시간 50분이 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안동숙화백 작품 120점 함평군에 기증

대표적인 한국화가인 오당(吾堂) 안동숙(91) 화백이 자신의 대표작 120점을 고향인 함평군에 기증한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 유당미술관에서 안병호 군수와 안 화백이 기증 협약식을 갖고 다음달 3일 개관하는 함평 군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다.

함평 군립미술관은 연건평 380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오당 안동숙 화백 기증작품전과 ‘고향을 그리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함평군 나산면 출신인 안 화백은 국전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 이화여자 미술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1993년 국민훈장무련장과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한 대표적인 한국화가다.

/서부취재본부=황은하기자 hwang@

진도 단호박 日 유기인증 획득

전남 최초… 수출 청신호

진도 단호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유기인증(JAS)을 전남 최초로 획득했다. JAS는 국제 식품규격(codex) 기준을 기초로 한 일본의 ‘농산물집 규격화 및 품질표지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일본 유기농시장 공략을 위해 필수적이다.

진도군은 단호박을 생산하는 자연

지기 영농조합법인이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인정한 유기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농조합 법인은 단호박에 대해 생산공정 관리자, 관리조직 등 인증 시스템 및 토양환경, 재배방법, 품질 등 기술적인 요소 등의 현지 조사와 표본 검사, 생산 현장 검증 등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조경일 법인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일본 JAS 인증 획득으로 우수한 품질의 진도 단호박을 생산, 일본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관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남양원전 대39352㎡, 건10821㎡ 감평가 156억8천 최저가 70억42천 윤천공토지확보가능	신원동[3층스포츠센터] 대3026㎡, 건5984㎡ 감평가 69억4천 최저가 38억8천	수기동[12층광화동] 대8923㎡, 건7588㎡ 감평가 74억8천 최저가 41억9천	충장로3[근린시설] 대8349㎡, 건9611㎡ 감평가 3억42천 최저가 12억	동원동[3층상가주택] 대198㎡, 건335㎡ 감평가 3억42천 최저가 2억42천	금동[다세대주택] 대190㎡, 건363㎡ 감평가 3억42천 최저가 2억1천	금동[원룸1672] 대190㎡, 건363㎡ 감평가 3억42천 최저가 2억42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용봉동 [하미스포렉스] ☜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평가 515억4천 ▷ 매매가 160억 (시설비별도)	☞ 목포오양병원 ☜ ▷ 대지 7867평 ▷ 건물 2510평 ▷ 감평가 126억9천 ▷ 매매가 74억 (협의후결정)	☞ 광주옥동 공장 ☜ ▷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 건물879평 ▷ 감평가 15억7천 ▷ 매매가 7억5천 (협의후결정)	☞ 해남 땅골공단 ☜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 ▷ 감평가 83억 ▷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 전주 의약품센터 ☜ ▷ 대지 4112평 ▷ 건물 1749평 ▷ 감평가 85억5천 ▷ 매매가 60억 (협의후결정)	☞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장 ☜ ▷ 대지 3030평 ▷ 건물 599평 ▷ 감평가 99억4천 ▷ 매매가 50억 (협의후결정)	☞ 곡성석곡 공장 ☜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평가 44억3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 전북완주 동동 공장 ☜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평가 135억 ▷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태호전무이사 011-684-3886 공장/토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소재지	대지/2월	감평가	최저가	비고
송파	대228,2903	696천	299천	4층건물
동명	대120,2128	1944천	9943천	2층건물
남동	대409,21471	11943천	5941천	5층건물
구름	대261,21113	139	7942천	4층건물
중흥동	대248,21615	1897천	8943천	3층건물
삼평	대876,21615	1897천	8943천	5층건물
무의	대4734,21493	209	8943천	4층건물
양지	대1218,21523	8943천	3947천	단독주택
봉곡	대327,21513	4943천	3947천	3층건물
운림	대739,2194	2943천	1947천	단독주택

아파트/빌라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주택/재개발 김태호전무이사 011-684-3886 근린주택 김규석이사 010-6654-6888

병원,교회,사무,목매,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정매전문회사 직원모집]
* 고객이익우선원칙을 소중하게 지켜갈 경력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상담 및 접수 236-3400

금당 공인중개사

■ 감평가 이하

- 곡성군 옥곡면 다기주주택 대3693 건물200 다기구 16세대 대7천 전세 7천 월세있음 2944천
- 충장로5가 대지216 공시지가 11억4백 대7천 전세 대5693천
- 충장로5가 수퍼 대지 27 공시지가 199200 대도1억4천
- 대인동 원룸형 4층건물 대지42 건물95 방12개 월세220만원 선 수임 대1억3천 대도2억2천 임대사업 적합
- 금남로5가 대지80 건물300 공시지가 1393천 대도10억3천
- 관산구 운송동 금호타이어 부근 생산특지 587평 대1억1천8천 공시지가 295220만원 대도294천
- 중흥동 대지 242 건물 487 보증금 8500 월 200 지하와 3.4층은 공실 주차장 있어 시옥이나 요양시설 적합 6948천
- 우산동 상업지역 대지 185 건물3524 대출 5944천 대도 8942천
- 남구 송하동 그린벨트 산 8850평 공시지가 295800 대출 5500 대출 담보용 적합 대도1억
- 서동 원룸 건물 대지 69 건물 161 원룸9 투룸6 대출1억3천 전 세 6천 월 130 5개는 공실 2948천
- 중흥동 상업지역 90평 원룸용 적합 196600
- 북구 동림동 신희아파트 상가 2층 41평 포교당, 독사실 적합 5천만원

■ 매도

- 북구정부근 신축건물 원룸 11 투룸 9 대지 74 건물 147 대 도 7942천 전세대후문 부근으로 임대사업에 적합
- 해운대 남동 소재 대지100평 1800만원 농촌생활적합
- 부지가워있는 무등산 자락 그린벨트 산 담양군 남면 115344 평 공시지가 1억 5500만원 대도 3948천 평당 3300원
- 비드가 한옥별장 무안군 향진면 대지 200 건물 43 무(자) 용 지 5천 포함해서 2억 8천만원
- 함평군 월1만 소재지 주택 대지 147 건물 24 대출2500 대도 7천만원 전원생활
- 함평 해보면 영암정 좋은 모텔 대지 321 건물 210 객사리 21 운항 4946천 현금입부필요하고 교환가능 10억

T. 222-4994, 010-2632-5659 동구 총장로5가

전원주택

고흥 바닷가

향토집+텃밭

약 200평

전세 2500만원

고흥대전리

해수욕장 옆

펜션 모텔부지

3000평

고흥▶광주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현재: 유자·매실밭

3000평 (평당 5만원)

061)843-7005

010-8200-566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 물(매매)

-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0억/월세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700평 (매가110억)보증금40억/월세3,000만원
- 토지200평 건물725평(매매가 32억) 보증금7억 월세 약1,700만원
- 토지1164평 건물약600평(매매가30억) 보증금6억/월세1,700만원

토 지(매매,상무지구)
(회사사옥,병원,학원,기타부지 등)

-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유통가능)45평당(중)
- 833㎡(252평)-평당1,300만원 (상무지구)(변화가 사거리코너)
- 1,980㎡(600평)-평당1,200만원 (상무지구) (유통가능)
- 3,400㎡(약1,000평) 평당750만 원(대도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원 (예산장 직할)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때마다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핫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자현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시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핫 011-802-2532 (광주영흥 신복정원, 대인동 송영서건너편)